

<중 설>

## 동서의 피부 질환 명칭에 대한 소고

최인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부과학교실

### A Study of the Term 'Dermatology' in Oriental Medicine

*In-Hwa Choi*

**Objectives** : In order to establish a base for proper treatment and management of patients with dermal problems through correct diagnosis, I considered the naming rule for dermatology in Oriental Medicine, referring to the dermatology literature compared to western medicine.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of dermatology.

**Methods** : I examined the naming rule of dermatology in Oriental Medicine and then compared the disease names i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and the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of dermatology referred to the records.

**Results** : The dermal diseases have been named according to their colors and morphologies, causes, progress of symptoms, recurrent sites, the character of distribution, recurrent seasons, ages, the character of patients' jobs and locations. Sometimes some have been named by referring to their main morphologies, sites, causes, colors and seasons synthetically. However it was found some names for dermal diseases, even though the same diseases, had been named differently according to for example: historical times, condition of locations and the quality of doctors whose process of naming developed and changed over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of each name for dermal diseases is basically divided into 5 types: same names - same diseases; same names but different diseases; same diseases but different names; one disease with multiple names; and one name with multiple diseases.

Considering the methods of classification, these were generally achieved according to their places of origin. It is a method unique to Oriental medicine that we classified some dermal diseases into 疥, 癬, 瘡, 風, 丹, 疱, 疹, 癰, 痘, 疽 and so on and it is very easy to diagnose which part they belong to. This was classified by putting first the causes of diseases; for instance: viruses, bacteria, fungi. Sometimes, however there was a problem, connected to the classification of morphology.

**Conclusions** : I suggest that we need to unify and refine dermatological terms in Oriental Medicine in order to establish a base for proper treatment and management of patients with dermal problems through correct diagnoses.

---

**Key words** : term dermatology, naming rule, classification for dermal diseases

---

교신저자: 최인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7-21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안이비인후부과

(Tel: 02-3416-9735, E-mail: inhwajun@hanmail.net)

후원: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서론

임상에서 피부과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로서 한 번쯤 느껴보았을 만한 첫 번째 어려움은 피부병의 진단 및 진단 병명에 대한 것일 것이다. 즉 과연 이 병은 무엇인지, 양방 진단명에 해당하는 한방병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일 것이다. 피부 외과 영역 중 외과질환의 경우 비록 병명이 많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부위, 穴位, 장부, 병인, 증상, 형태, 색깔, 질병특성, 범위의 크고 작음, 전염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명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부과의 경우 병명 및 증상명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복잡하고 용어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sup>1,3)</sup>. 더욱이 한 병명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동일한 질병인데도 병변 부위, 병의 단계, 형태 등에 따라 다른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sup>4)</sup>.

이에 문헌에 나타난 피부과 영역의 질환명 및 증상명의 명명규율을 조사한 후 서의학에서의 진단명과 비교하여 그 분류의 특징을 아울러 살펴보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치료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법

中國中醫研究院 廣安門 醫院 皮膚科의 李博鑑 教授가 1999년에 펴낸 《中醫証治概要》<sup>4)</sup>에 피부병의 명명 및 분류에 관해 자세히 언급해 놓은 바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1. 피부외과 질환명의 명명규율을 살펴보았다.
2. 고대 및 최근 중의 피부외과학책에 기재된 피부외과 질환명과 서의학 질환명을 비교 검토하였다.
3. 서의학과 한의학에서의 피부 질환 분류법을 살펴보았다.

결과

1. 피부병의 명명규율<sup>2-4)</sup>

표1.形色命名: 피부손상의 주요한 형태 및 색깔에 따른 명명

분류	진단명
한의학	燕窩瘡(枕部毛囊炎), 肉蜈蚣(반흔성 疥瘡), 鵝口瘡, 鼠乳(전염성 연속종), 象皮腿(반복성 림프수종), 貓眼瘡(다형 홍반), 驢眼瘡, 蛇皮癬, 翻花瘡, 冬瓜腿, 白駝風, 葡萄瘡(알레르기성 자반증), 丹毒, 靑記臉, 紫印臉, 鰐黑斑, 黃肥瘡(口水皮炎), 赤白遊風(소아단독), 牛皮癬
서의학	癩瓦癬(tinea imbricata), 膠樣粟丘疹(colloid milium), 扁平苔蘚, 白化病, 黑變病(melanism), 蟾皮病(phrynoderma, toad skin), 小棘苔蘚, 紅斑狼瘡, 虫蝕狀皮膚萎縮, 鱗狀毛囊角化, 魚鱗病(인실질관), 藍痣(blue nevus), 花斑癬(tinea versicolor), 玫瑰糠疹(장미색 비강진), 條紋狀角化症(keratinosis), 光澤苔蘚, 화염상 모반, 해면상 혈관종, 딸기 혈관종, 화폐상 습진

표2. 부위명명: 호발부위와 분포특징에 따른 명명<sup>2,4)</sup>

분류	진단명
한의학	旋耳瘡, 臍瘡, 腦後發, 人中疔, 眉風癬, 羊胡子瘡(須瘡), 三里發, 臍瘡, 脣風, 甲疽, 委中毒, 乳頭風
서의학	對稱性進行性白斑, 單側痣樣毛細血管擴張, 帶狀疱疹, 偏側性疣狀痣, 限局性角化症, 泛發性硬斑病, 系統性紅斑狼瘡, 舌痛, 脂節熱, 汗管瘤, 面正中黑子病, 口角唇炎, 口周皮炎, 角層下膿疱病, 手足口病, 眼口生殖器綜合症, 皮下脂肪肉芽腫

표3. 병인명명: 질병발생의 주요 병인, 병기에 따른 명명<sup>4)</sup>

분류	진단명
한의학	風毒腫, 風癰疹, 濕毒瘡, 花柳病, 燥毒瘡, 火丹瘡, 寒瘡, 熱毒流注, 濕毒流注, 漆瘡, 汗漸瘡, 日晒瘡, 灸瘡
서의학	火激紅斑(화환상 홍반 · gyrate erythema), 貓狐病, 念珠菌病, 糖尿病性皮膚病, 血栓閉鎖性脈管炎, 色素失禁症, 皮膚鈣沉着病(Ca 침착병)

표4.病程명명: 병정의 장단, 진전속도 및 재발여부 등에 따른 명명<sup>4)</sup>

분류	진단명
한의학	百日瘡, 千日瘡, 走馬牙疳, 火燎瘡, 月蝕瘡, 急淋
서의학	만성 습진, 暴發性 紫癩, 급성 임파선염, 재발성 구강개양, 유행성 출혈열, 아급성습진

표5. 계절, 잘 걸리는 군에 따른 명명: 질병의 호발계절, 병에 잘 이환되는 연령, 직업특징 등에 따른 명명<sup>4)</sup>

분류	진단명
한의학	夏日沸癩瘡, 雁瘡(한냉성 다형성 홍반), 時毒暑癩, 桃花癩(單純 糠疹), 胎赤, 奶癩, 奶腥瘡, 夏季皮炎, 夏令水疱病, 冬季痒疹, 青少年春季疹, 成人硬腫病, 戰壕足, 冲浪運動員結節, 유아습진,
서의학	男性禿髮(남성형 탈모증 · Male pattern alopecia) <sup>9)</sup> , 女陰搔痒病, 嬰兒濕疹, 老年瘙痒病, 新生兒紅斑, 月經疹, 婦女多毛症

표6. 인명, 지명에 따른 명명: 발건지나 보도한 사람의 이름, 또는 호발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라 명명한다<sup>4)</sup>.

명명 방법	진단명
인명, 지명에 따른 명명	鮑溫氏病, 李斯德菌病(Listeria), 太田痣(Ota 모반), 白塞病(베셀씨 병), 馬凡綜合症(Marfan 증후군), 瑞爾氏黑變病, 伊藤痣(Ito 모반), 從林斑疹傷寒(scrutypus), 地中海熱

표7. 종합명명: 질병의 주요 형태, 색깔, 부위, 병인, 병기, 계절에 따라 명명<sup>4)</sup>

분류	진단명
한의학	口下黃肥瘡, 水漬手Y瘡, 小兒赤游丹
서의학	急性發熱性嗜中性皮炎(급성 열성 호중구성 피부염 · Acute febrile neutrophilic dermatosis), 離心性環形紅斑(중심 원심성 윤상 홍반 · erythema annulare centrifugum), 持久隆起性紅斑(지속성 이색성 홍반 · erythema dyschromicum perstans) <sup>9)</sup> , 摩擦性苔蘚樣疹, 手足復發性大疱性表皮松解症, 丘疹性壞死性結核疹, 口周色素性紅斑

표8. 기타 질병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시기, 지역 조건, 의사의 수준 등의 차이에 의해 질병의 형태표현, 발전단계, 발생 부위, 예후 등에 따라 같은 질병을 다르게 명명하기도 하였다.

분류	진단명
한의학	(1) 小兒丹毒: 역대 문헌에서 天奪丹, 游火, 天灶丹 등 10개 병명이 있음. (2) 급성임파관염: 紅絲疔, 血絲疔, 赤疔 등 20여개 명칭
서의학	(1) 結節病(Lodosum): 肉樣癬癩(유육종증 · Sarcoidosis), 凍瘡樣癬癩(루푸스 동창 · Lupus pernio) 등 6개 병명 <sup>9)</sup> (2) 黑踵(Black heel, talon noir) <sup>8)</sup> : 足根癬點, 黑趾 (3) 顏面粟粒性癬癩: 顏面播散性粟粒性癬癩(안면 파종상 속립성 루푸스 · Lupus miliaris disseminans faciei) <sup>9)</sup> , 粟粒癬癩樣結核속립성 루푸스양 결핵) 등 6개 병명

## II. 중서의 피부병명과의 관계<sup>4)</sup>

### 1. 同名同病

風疹, 麻疹, 麻風, 丹毒, 梅毒, 脚墊, 雀斑, 鷄眼, 汗斑, 疥瘡, 酒醜鼻, 嵌甲, 水痘, 天花, 白癩風, 腋臭 등

### 2. 同名異病

1) 牛皮癬: 한의에서는 神經性 皮炎을 말하나 서의에서는 銀屑病 즉 乾癬을 가리킨다. 한의에서는 乾癬을 白疔, 乾癬 또는 松皮癬이라 부른다.

2) 臙瘡: 이는 정강이 부위에 창이 생기는 특징적인 병변을 말하는데 서의에서는 深膿疱瘡을 말하며 球菌感染性皮膚病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의에서의 臙瘡은 서의에서 말하는 小腿靜脈性潰瘍을 말하며 皮膚脈管性疾病에 속한다.

### 3. 異名同病

표9. 異名同病

한어	서어	한어	서어
監注	稱監瘡	腦濕	皮角
鼠乳	傳染性 軟疣	狐惑	眼, 口, 生殖器綜合症
風瘙癢	瘙痒病	風痞	蕁麻疹
風癩疹	人工蕁麻疹	口吻瘡	口周皮炎
土風瘡	丘疹性 蕁麻疹	猫眼瘡	多形性紅斑
纏腰火丹	帶狀疱疹	熱瘡	單純疱疹

4. 一病多名

1) 天疱瘡: 한의의 天疱瘡은 皮膚癩癧起疱를 가리키는데 작은 것은 완두콩이나 검실크기이고 큰 것은 매실이나 계란크기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서의학의 전형적인 天疱瘡을 포괄하는데 泡疹樣天疱瘡, 大疱性類天疱瘡, 疤痕性類天疱瘡(반흔성 유천포창), 泡疹樣皮炎 등 여러 종류의 大疱 및 泡疹性皮膚病이 이에 속한다.

2) 瓜藤纏: 정강이에 생긴 結節을 말하는데 정강이를 둘러싸고 생기는 모습이 마치 瓜藤이 얽혀있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서의학의 變應性皮膚血管炎, 結節性血管炎, 結節性紅斑, 硬紅斑, 結節性多動脈炎 등의 여러 종류의 皮膚血管炎 질병을 포함한다.

5. 多病一名

한의학에서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표시되었으나 서의에서 찾아보면 동일질병이지만 발생 부위나 발전단계에 따라 분류된 것인 경우가 있다.

1) 한의의 白屑風, 面游風, 眉風癬, 鈕扣風 등은 서의에서 지루성피부염(脂溢性皮膚炎)으로 통칭한다.

2) 妬頭瘡, 旋耳瘡, 戀眉瘡, 乳頭風, 胎斂瘡, 奶腥瘡, 鼻蟲瘡, 獨骨瘡, 濕毒瘡, 下注瘡, 胞漏瘡, 掌心風, 浸淫瘡 등은 서의에서는 濕疹으로 통칭한다.

III. 피부병의 분류<sup>4)</sup>

분류학은 사물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구분하는 귀류적인 학문이다. 동일한 사물에 다른 분류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1. 부위별 분류법

1) 隋代 《諸病源候論·卷二十七》: 毛髮病諸候, 面體病諸候, 目病諸候, ....., 四肢病諸候

2) 清代以前 《千金要方》, 《外科理例》, 《瘍

醫大全》, 《瘍科會粹》, 《外科大成》 등.

3) 《外科証治全書》: 頭, 面, 眼, 項, 胸, 乳, 腋 등 19개 부위로 나누어 기술했다.

4) 《醫宗金鑒》: 28개 부위로 구분 髮際瘡, 掌心風, 串腰龍, 脣風, 眉風癬 등.

단, 일정한 부위가 없이 산발하는 白癜風, 水痘, 傳染性 軟疣 등과 같은 병명은 “發無定處部” 또는 “不分部位部”로 분류하였다.

2. 병명분류법

중의에만 있는 고유한 방법이다. 장점은 병명을 보면 어디에 속하는 병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疥, 癬, 瘡, 風, 丹, 疱, 疹, 癰, 疽, 疔 등의 병명으로 분류한다.

1) 瘡: 奶腥瘡, 旋耳瘡, 髮際瘡, 濕毒瘡, 天疱瘡 등.

2) 風: 四彎風, 白癜風, 掌心風, 大脚風 등.

3) 隋代 《諸病源候論·卷三十一》: 癰瘡等病諸候, 腫病諸候, 疔瘡病諸候, 癰疽病諸候, 癩病諸候, 瘡病諸候

4) 《外科啓玄》, 《洞天奧旨》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법을 따랐다.

5) 《中醫外科學》<sup>2)</sup>: 하나의 병에 여러 병명이 있는 경우 이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1) 乳癬, 奶腥瘡 - 嬰兒濕疹

(2) 砍頭瘡, 發腦疽, 腦後發 - 項部癰

(3) 痘風瘡(頭, 風, 瘡), 風疹(風, 疹), 面塵, 瓜藤纏뿐만 아니라 毛髮, 汗腺, 爪甲 등의 질병까지 수록하였으며 고대 중의서적에 기재되지 않았던 艾滋病, 手足口病 등도 언급하였다.

3. 종합분류법

서의의 각종 피부과 전문서적을 살펴보면 그 분류에 있어 병인을 위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병독성(세균성) 피부병, 구균성 피부병, 간균성 피부병, 진균성 피부병, 유전성 피부병, 내분비 대사영양장애성 피부병 등이다<sup>3)</sup>. 하지만 그 병인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 형태학적인 내용을 첨가하였는

데 예를 들면 紅斑, 鱗屑性 皮膚病, 大疱 또는 疱疹性 皮膚病 등이 그것이다<sup>6,7)</sup>. 하지만 병인이 불분명하고 형태가 다양하며 그 발생 부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종합적인 증후군으로 명명하여 腺熱綜合証, 黃甲綜合証, 皮膚-口腔炎綜合証 등의 이름을 붙였다. 또 진단의 편의를 위해 형태학적인 면을 중심으로 병변 발생 부위 위주로 분류하기도 한다<sup>8)</sup>.

최근 중의 피부과 문헌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병독성 피부병(바이러스 감염), 구균감염성 피부병, 간균성 피부병, 진균병, 동물로 인한 피부병, 물리적 인자에 의한 피부병, 변태반응성 피부병(알레르기로 인한 피부병), 결체조직병, 신경기능장애성 피부병, 각화 및 유전성 피부병, 홍반·구진 및 인설성 피부병, 대포성·포진성 피부병, 피부혈관 및 입파관병, 영양 및 대사장애성 피부병, 색소장애성 피부병, 피부종류, 성병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9)</sup>.

## 고찰

임상에서 환자가 피부의 문제를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 한의사가 치료에 앞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문제는 과연 이것은 무슨 질환이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것이다. 흔히 접하게 되거나 널리 알려져 있는 질환이 아니고 환자가 이미 진단명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의학에서의 진단명을 알고 있다할지라도 참조할 만한 자료를 찾거나 변병 및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한방 병명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이는 환자를 관리하고 예후를 알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치료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피부과의 경우 병명 및 증상명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복잡하고 용어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병명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동일한 질병인

데도 병변 부위, 병의 단계, 형태 등에 따라 다른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문헌에 나타난 피부과 영역의 질환명 및 증상명의 명명규율을 살펴보고 서의학에서의 진단명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그 분류의 특징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중의학 문헌을 참조할 때 갖게 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영문으로 표기된 이름을 그들 나름의 한자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여 우리로서는 더욱 알아보기 힘든 경우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이에 근본적으로는 한의학영역에서의 용어 통일 및 재정비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는 바이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부병의 명명규율에 대해 살펴본바 몇 가지 특징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 즉 피부손상의 주요한 형태 및 색깔에 따른 명명, 호발부위와 분포특징에 따른 명명, 질병발생의 주요 병인, 병기에 따른 명명, 병정의 장단, 진전속도 및 재발여부 등에 따른 명명, 계절 및 잘 걸리는 군에 따른 명명, 질병의 호발 계절, 병에 잘 이환되는 연령, 직업특징 등에 따른 명명, 인명, 지명에 따른 명명 등이 있었다<sup>1-3)</sup>. 이외에도 질병의 주요 형태, 색깔, 부위, 병인, 병기, 계절에 따라 이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또 질병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시기, 지역 조건, 의사의 수준 등의 차이에 의해 질병의 형태표현, 발전단계, 발생 부위, 예후 등에 따라 같은 질병을 다르게 명명하기도 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한 질환에 대해 여러 개의 병명을 혼용하게 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병정의 장단, 진전속도 및 재발여부 등에 따른 명명의 경우 병명을 통해 병정의 장단 또는 병의 경중완급을 알 수 있어 예후 판정 및 치료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sup>4)</sup>.

한의학과 서의학에서 언급한 각각의 피부병명과 의 관계는 크게 同名同病, 同名異病, 異名同病, 一病多名, 多病一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한의

학에서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표시되었으나 서의에서 찾아보면 동일질병인데 발생 부위나 발전단계에 따라 분류된 것이 경우가 있어 진단시 주의해야 하며 또 한의학에서는 한 가지 병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서의학적 분류에 따르면 여러 가지의 질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 또한 주의를 요한다<sup>4)</sup>.

분류 방법을 살펴본바 질병 발생 부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 외에 한의학에만 있는 고유의 방법으로 疥, 癬, 瘡, 風, 丹, 疱, 疹, 癰, 疽 등의 병명으로 분류한 것은 병명을 통해 어디에 속하는 병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정확한 의미와 증상을 파악하는 것은 병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의학에서는 병인을 위주로 분류하였으며<sup>5)</sup> 이것이 곤란한 경우 형태학적인 분류를 첨가하였다<sup>6,7)</sup>. 하지만 병인이 불분명하고 형태가 다양하며 그 발생 부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종합적인 증후군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상 한의학 서적에 언급된 피부 및 외과병명의 명명 규율을 살펴보면서 서의학에서의 규율과 비교해 보았으며 그들의 관계 및 진단 시 주의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를 통해 중의학의 그늘에서 완전하게 독립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더욱 절감하게 되면서 거듭 강조하게 되는 것은 용어의 통일 및 재정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다각도로 관심있는 학자들간의 신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문헌에 나타난 피부외과 영역의 질환명 및 증상명의 명명규율을 살펴보고 서의학에서의 진단명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그 분류의 특징을 아울러 살펴본바 다음과 같았다.

즉 피부병을 형색, 병인, 병정, 호발부위와 분포

특징, 계절 및 잘 걸리는 군에 따른 명명, 질병의 호발 계절, 병에 잘 이환되는 연령, 직업특징 및 인명, 지명에 따라 명명하였다. 이 이외에도 질병의 주요 형태, 색깔, 부위, 병인, 병기, 계절에 따라 종합적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또 질병을 명명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시기, 지역 조건, 의사의 수준 등의 차이에 의해 같은 질병을 다르게 명명하기도 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학과 서의학에서 언급한 각각의 피부병명과 의 관계는 크게 同名同病, 同名異病, 異名同病, 一病多名, 多病一名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 중 한의학에서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표시되었으나 서의에서 찾아보면 동일질병인데 발생 부위나 발전단계에 따라 분류된 것이 경우가 있어 진단시 주의해야 하며 또 한의학에서는 한 가지 병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서의학적 분류에 따르면 여러 가지의 질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분류 방법을 살펴본바 질병 발생 부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 외에 한의학에만 있는 고유의 방법으로 疥, 癬, 瘡, 風, 丹, 疱, 疹, 癰, 疽 등의 병명으로 분류한 것은 병명을 통해 어디에 속하는 병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의학에서는 병인을 위주로 분류하였으며 이것이 곤란한 경우 형태학적인 분류를 첨가하였다. 하지만 병인이 불분명하고 형태가 다양하며 그 발생 부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종합적인 증후군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1. 陸德銘 主編, 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1:5-6.
2. 顧伯康 主編, 中醫外科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7:4-14.
3. 顧伯華 主編, 實用中醫外科學,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7-13.

4. 李博鑑. 皮科証治概要.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1:465-472.
5. 이유신. 임상피부과학. 서울:여문각. 1989: 50, 53, 95, 153, 230.
6. Habif. Dermatology. St. Louis: Mosby, 3rd edition. 1996:contents(vii-xi).
7. 안성구, 이승헌, 박윤기. 흔히 보는 피부질환. 서울:고려의학. 1993: 1.
8. Nichiyama. Atlas of regional dermatology. London:Martin Dunitz. 1996:contents(vi- x).
9. 黃泰康 總編. 中醫皮膚病性病學. 北京:中國醫學科技出版社. 2000:目錄(1-4).